

LeaderShip
SPP MasterShip
PartnerShip



Your Shipbuilding Partner

SPP Shipbuilding Group

造船速報

Shipbuilding Information Service

발행 : EAST PEOPLE
주소 : 서울 강남 역삼 705-9 삼흥 1213호
전화 : 02)3473-3321 FAX : 02)3473-3324
e-mail : epeople@unitel.co.kr

필리핀 수빅조선소

HHIC-Phil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됩니다.



한진중공업
HANJI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2009. 7. 6.(月) 오늘의 HOT NEWS 제02-701호

NITC와 VLCC 6척 신조추진

최근 중국 정부의 조선업 진흥책을 배경으로 서서히 꿈틀대기 시작하는 신조시장에서 중국 조선업체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의 대표적인 국영조선업체인 大連船舶重工 및 上海外高橋造船이 최근 이란국영선사인 NITC와 VLCC 신조 상담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협상하고 있는 발주 기준 척수는 6척으로 알려졌으며, 원하는 납기는 2012년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조선업 진흥책으로 신조선 용자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어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못한 NITC사로서는 중국 조선업계에서 제공하는 선박금융이 매력적으로 작용, 먼저 VLCC 건조실적을 충분하게 가진 이들 2개 조선소와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NITC사는 장기적으로 최대 VLCC 20척의 신조선을 계획하고 있다고 여겨지며, 이번에 6척을 신조하는 협상을 하고 있는 것도 이들 중장기 VLCC 발주계획의 일환으로 보인다.

당초에는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를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한국 조선소는 경쟁력이 있는 선가를 제시하고 있으나 선박금융 부문에서 중국에 비해 우위를 점하기 어려워지면서 중국조선소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상담을 진행하는 VLCC 6척은 NITC의 자사 보유가 아니고 중국 선주로부터 매입하는 옵션을 조건으로 장기용선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지식경제부 지정 "차세대 용접 생산/ 설계 기술자 재교육 사업"

용접기초교육과정(Ⅰ) 수강생 모집

- 대 상 : 업체 현장 용접 관리자, 설계자, 엔지니어

- 문 의 : 한국항공대학교 현장기술인력 재교육사업단

- 일 정 : 7월 15일 - 7월 16일

☎ 02-300-0455 e-mail : dncclub@hanmail.net

- 수강료 : 무료(중식 불포함)

- 수강신청 : 홈페이지 www.weri.or.kr

- 장 소 : 대불공단클러스터추진단 강의실

※ 주관기관 : 한국항공대학교



위탁기관 : 조선대학교



Strong protection at all points

HEMPEL Paints

- Easy application
- Exceptional strength
- Long-term protection
- Value for money

Hempel (Korea) Co. Ltd.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136, SK글로벌빌딩 5층
601-711

Tel : +82 (051) 647-5854

Fax : +82 (051) 647-6234

Email : sales@kr.hempel.com

Website : www.hempel.co.kr

대우조선, LNG선 4척 동시 명명식

대우조선해양이 3일 21만㎡급 초대형 LNG선 4척의 동시 명명식을 열었다.

이로써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한 역대 최대 LNG운반선 건조 프로젝트이자 무공해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의 대량공급 시대를 열었던 '카타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명명식에는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 카타르가스 운송회사 무하마드 가남 사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L KHATTIYA', 'AL KARANA', 'AL NUAMAN', 'AL BAHIYA'호로 각각 명명됐다.

'카타르 프로젝트'는 QGTC사와 오일메이저인 엑손모빌이 함께 발주한 초대형 LNG 프로젝트로 지난 5년여간 국내 빅3가 건조에 나선 사업으로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카타르가스 프로젝트 발주 선박 총 53척 중 절반에 달하는 26척을 수주했다.

대우조선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세계 최초로 2대의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추진방식을 제안, 라지 LNG운반선 건조방식의 표준이 됐다.

대우조선해양이 제안한 2대의 디젤엔진 추진 방식은 가스터빈 방식의 기존 LNG선보다 운송 효율과 정비가 쉽고, 약 30%정도 낮은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친환경 선박이다.

또한 운항 중 발생하는 기화가스를 다시 재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는 재액화설비를 탑재, 운항중 버려지던 천연가스의 손실도 최소화 해 선주 측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날 명명식을 마친 선박들은 오는 12월까지 해상시운전과 가스 시운전을 모두 마친 뒤 선주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고려조선, 조선소 건설 1년 연기

새로이 조선소를 건설하는 고려조선이 조선소의 완성 시기를 내년 6월까지 1년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에서는 금년 6월 30일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전체공정의 60% 정도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주잔량으로 확보한 케이프 벌커 8척의 건조여부도 불투명해 보인다.

고려조선은 진도에서 부지면적 68만㎡의 조선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건설공사를 시작, 이미 대형 도크 2기가 완성된 상태로 총사업비 1,400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800억원이 투입되었다.

개발 주체인 고려중공업이 이번에 지방정부에 조선산업 단지의 준공 시기의 연기를 요청, 이를 받아 들인 상태이다.

고려조선의 수주잔량은 18만dwt급 벌커 8척으로 발주처는 그리스 Dryship 2척, Excel Maritime 4척 이외 2척으로 1호선의 경우 납기는 금년이었지만 조선소 건설이 늦어지면서 공정에 영향은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대중공업, 16일간 여름휴가

현대중공업이 최장 16일간의 여름휴가를 실시, 이달 25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16일간(주말·휴일 포함) 여름휴가를 실시한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정기휴가 5일, 중복휴가(공휴일이 주말·휴일과 겹칠 경우 별도 1일) 규정에 따른 휴가 3일, 노조창립기념일 1일, 회사에서 보너스로 주는 휴가 1일 등 10일이다 주말·휴일 6일을 합쳐 16일간 휴가를 갖는다.

이는 1972년 창사 이래 가장 긴 여름휴가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노사협상에서 휴가 중 공휴일이나 일요일이 겹치면 다른 날 하루를 휴무하는 중복휴일 휴무제를 폐지하는 대신 여름휴가를 5일에서 9일간으로 늘리면서 여름휴가가 이처럼 길어졌으며, 휴가비는 단협에 따라 50만원씩 일괄 지급된다.

이와 달리 현대미포조선은 중복휴가에 대한 단체협약이 마련되지 않아 예년과 같이 8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여름 정기휴가를 실시하며, 휴가비는 현대중공업과 같은 50만원.◎

mke 지식경제부 차세대 용접 생산/설계 기술자 재교육 과정 수강생 모집

- 대상 : 업체 현장 용접 관리자, 설계자, 엔지니어
- 일정 : 2009. 8. 17(월) ~ 2010. 8월말(약 12개월)
주 4회(월, 화, 목, 금), 일일 2시간
- 수강료 : 1,770,000원/인
- 장소 : 부산 녹산산업단지공단

- 문의 : 한국항공대학교 현장기술인력 재교육사업단 ☎. 02-300-0455 e-mail : dncclub@kau.ac.kr
- 수강신청 : 홈페이지 www.weri.or.kr

※ 주관기관 : 한국항공대학교



위탁기관 : 조선대학교



RG-콜 "뜨거운 감자" 부상

국내 중소형 조선사들의 부실이 금융권으로 전가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선박금융 부실과 선수금반환 문제로 이중 선수금 반환문제는 1차 지급 의무가 있는 은행은 물론 은행이 보험을 든 보험사에 대규모 손실을 초래, 그 파장이 크다.

국내 은행과 보험사를 중심으로 부실조선사의 선수금 반환 요청(: RG 콜)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미 신한은행은 메리츠화재에 RG 보험금 지급소송을 신청했고, 국민은행과 흥국화재는 해외선사와 선수금 반환시기를 조율중이다.

진세와 녹봉조선 등에서 추가 RG콜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관련 금융회사들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부실조선사에 대한 지원방향을 놓고 보험사와 은행 등 채권단끼리의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보험사는 RG보험을 든 선박에 한해 자체적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해 RG 보험금 지급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신규자금지원 불가, 동등한 수익배분을 요구하는 채권단과의 의견 불일치로 불만만 토해내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O&중공업, 진세조선, 녹봉조선, 아시아중공업 등 부실 조선사에 대한 RG 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臺CPC, VLCC 대량 건조 계획

대만중유주식회사(:CPC)는 최근 2개의 대만해운회사와 연합하여 석유운송공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으로 합작이 이루어지면 CMC사는 이 합자회사의 48%의 지분, 유밍항운(U-Ming Marine Transport)과 중국항운은 각각 26%의 지분을 갖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중유는 합자로 운송공사를 설립함으로써 경영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 자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에 의하면, 이 합자회사는 약 15억달러를 집중 투자하여 그 중 절반은 7척의 VLCC와 8만톤급 유조선 1척을 건조할 예정이며, 향후 35척의 VLCC선대를 확충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STX대련, 대형 도크 1기 완공식 거행

STX조선해양은 중국의 대련현지법인에서 대형 도크 1기를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30일에 현지에서 준공식을 거행했으며, 도크는 길이 460m×폭 135m×높이 14.5m로 10만톤급의 신조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크는 공사의 개시일로부터 147일만에 완성, 중국 내에서도 최단 공사기간에 완성했다.

당초 중국정부로부터 도크의 건설 허가가 나오지 않아 화물운반선을 주력으로 한 육상 건조를 추구했지만 방침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덧붙여 STX대련 현지법인은 금년 4월에 58K급 벌커 1, 2호선을 건조, 인도한 바 있다.■

내년 1분기 상선 수주 재개

내년 1분기부터 조선업계의 상선 수주가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수요 회복에 따른 것은 아니어서 조선업황의 본격적인 회복으로 보기는 힘들 듯하다.

대신증권은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를 보이며 신조문의(:Inquiry)가 미미한 수준이나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선주와 조선사간 선가에 대한 의견차가 커 신규 발주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했다.

전재천 연구원은 "2010년 6월이면 조선사의 수주 잔고가 임계 수준인 1.5년에 근접하게 된다"며, "신조문의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고 조선사들도 조급해짐에 따라 내년 1분기부터 선가 협상의 합의점을 찾는 사례가 생기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그러나 이를 본격적인 업황의 회복으로 보기는 우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 power behind...
...profitable drilling operations



Power and productivity for a better world™ **ABB**

In the offshore drilling market, profitability is highly dependent on maintaining continuous operations with minimum downtime and off-hire. To achieve this, offshore operators demand the most reliable, high performance power and drives technology. ABB is the leading supplier of electric power systems including drilling and thruster drives to the world's drilling fleet. Based on well-proven ABB technology, we provide fully integrated electrical solutions designed for high performance, easy installation and lifetime serviceability. Visit us at www.abb.com/marine

ABB Marine & Cranes
Tel : + 82 51 621 2500
Fax : + 82 51 621 2918
E-mail : ji-seung.yoo@kr.abb.com

중 신조선 해약 152척 · 439만dwt 집계

중국선박공업협업협회(CANSI)는 중국의 신조선 발주 취소가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합계 152척 · 439만중량톤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지난 1일에 발표한 2009년 1-5월의 "선박 공업 경제 운행 정황"에서 분명히 밝혔다.

다만 발표한 발주 취소량은 불완전한 것으로 실제로는 이 수치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금년 신조선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한 118만중량톤이었다.

통계에 의하면 작년 10월~금년 5월까지의 발주 취소량은 5월말 시점에 중국 전체 수주잔량의 약 2.3%에 해당되며, 금년에는 합계 55척 · 232만중량톤이었다.

한편 현지집계는 작년말 시점에 중국의 신조선 발주취소는 벌커 만으로 합계 197척 · 약 1,966만중량톤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관계자 등에 의한 정보를 정리한 집계에서도 중국의 해약은 최소한 합계 233척에 달하며 LOI(내정분)의 취소나 옵션 불이행 등을 포함한 발주 취소량은 통계 수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년 1~5월 사이의 중국 조선소들의 신조선 건조량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1,216만중량톤으로 나타났으며, 5월말 시점에 수주잔량은 합계 1억9,228만중량톤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에 일정규모 이상의 조선 관련 업체들의 영업수입(:매출)은 45.8% 증가한 1,599억 위안(:2,000억엔)이며, 신조선 부문이 56.4% 증가한 1,180억위안, 선박관련기기가 43.6% 증가한 192억위안, 수리선 · 해체부문이 9.1% 증가한 225억위안이었다.

실현이윤총액(:이익)은 2.7% 감소한 121.1위

안이며, 신조선이 10.8% 증가한 90.4억위안, 선박관련기기가 6% 증가한 10.4억위안, 수리선 · 해체부문이 38.6% 감소한 20.3억위안이었다. ▣

수에즈막스, 신조 리세일 7,200만불

외신보도에 의하면 그리스 선주 Metro Star사는 수에즈막스 탱커 2척을 척당 7,200만불에 신조 매각했다.

대상이 된 것은 현대중공업에서 금년 10월과 내년 1월에 준공되는 16만dwt급으로 이 선사는 지난 2007년에 척당 8,000만불에 발주했다.

탱커의 신조 리세일 가격은 큰 폭으로 내리고 있는 가운데 작년 8월에는 중국선사인 HOSCO(:河北遠洋運輸)가 프런트 라인으로부터 2009년에 중국의 江蘇熔盛중공업에서 준공하는 156,000dwt급 수에즈 막스 2척을 척당 1억1,100만불에 구입한 바 있다. ▣

중국은행, CSSC에 800억위안 제공

중국은행(BaC)이 中國船舶工業集團公司(China State Shipbuilding Corp:CSSC)에 800억위안(약 117억불) 규모의 막대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략적 제휴 계약 체결하에 중국은행이 CSSC에 투자금융, 상업금융, 보험 등의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중국정부는 유동성 압박에 시달리는 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자국 은행들이 조선소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을 장려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중국은행은 중국 조선업계에 총 1,300억위안의 금융지원을 제공하였다.

중국 최대 민영 조선사인 Jiangsu Fongsheng중공업도 지난 6월 중국은행으로부터 112억위안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받은 바 있다.

한편 CSSC는 Changxing 및 Longxue 신설조선기지 건설을 위해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2015년까지 선박 건조능력을 현재 400만DWT 수준에서 1,400만DWT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新興 ENG

TEL) 051-817-6455 . FAX) 051-818-2455

http://www.shinheungeng.co.kr / mail : shinheung@shinheungeng.co.kr

30년 전통을 지닌

선박목의장 업계의 산증인

- CURTAIN
- SOFA
- CHAIR
- CARPET
- MATTRESS



국내 최초

VINYL LEATHER MED Cert 취득



중국정부, GCL사 선대확장 전폭 지원

상하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Grand China Logistics(:GCL)가 중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아 야심차게 선대확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CL은 이미 지난 달 Zhoushan Jirhaiwan조선소에 벌커 30척의 대규모 신조발주를 단행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단기간 내에 신조선 및 중고선의 대량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자국 조선소들의 일감 확보를 위해 이 선주의 신조발주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CL의 고위 경영진은 중국 교통부 관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GCL은 800억위안(약 120억불) 규모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짧은 기간에 신조 발주 등을 통해 200척 이상의 선박을 구매하여 중국 거대 선사인 Cosco 및 China Shipping Group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조선업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GCL을 선택하여 선대 확장을 위한 전폭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CL은 중국 하이난항공(:Hainan Airlines)의 물류 자회사로 지난 3월 중고선 1척을 구입하면서 해운업에 처음으로 진출한 중국의 신흥 선주다. ▣

Cosco 대련, VLOC 개조공사 인도

Cosco조선그룹 대련조선소가 일본 NK사로부터 수주해 개조한 VLOC 선박이 지난 1일 건조 및 인도되었다.

대련 Cosco-Shipyard는 짧은 공사 기간에 비해 성공적으로 건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본선은 총 길이가 322m, 너비가 58m, 깊이가 29.5m라고 한다.

또한 이번 건조의 계획 및 품질관리는 생산 설계와 단계별 사전 제작을 통해 심혈을 기울인 결과, 이전의 동종 공정에 비해 품질 뿐 아니라 효율성 또한 크게 제고되어 선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

Jurong조선소 리그 추가 수주

SeaDragon Offshore가 싱가포르 SembCorp Marine그룹 산하의 Jurong조선소에 반잠수식 리그 1기를 추가로 발주했다.

러시아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체를 인도받아 초심해용 반잠수식 드릴링 리그를 건조하는

것으로 계약가는 2억3,730만불로 알려졌다. 2011년 6월 인도 예정이다.

이 리그는 수심 10,000피트에서 작업이 가능하며, 최대 30,000피트까지 드릴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SeaDragon은 올해 4월에 동형선을 2억4,730만불에 발주한 바 있으며, 이번 발주는 2호선 추가 발주 옵션을 행사한 것이다. ▣

그린피스 Hybrid 선박 신조발주

국제 환경보호 단체 Greenpeace가 친환경 Hybrid 선박을 건조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노후선 개조를 통해 선대를 확보해 왔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신조선을 발주하는 것으로 독일 Fassmer조선소가 건조를 맡게 되었다.

이번에 독일 조선소에 발주한 선박은 3세대 'Rainbow Warrior'호로 선가는 2,300만유로(3,225만불) 수준이며, 2대의 diesel-electric 엔진이 장착될 예정이다.

풍속이 낮아지면 diesel-electric엔진을 통해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 선박은 Greenpeace 창립 40주년이 되는 2011년에 인도될 예정이다. ▣

이마바리조선, 상반기 건조량 44척

이마바리 조선의 2009년 상반기 신조선 건조량은 합계 44척으로 나타났다.

28K형 핸디사이즈 벌커 12척, 6,350TEU형 컨테이너선 6척 등을 건조, 전년 동기 대비 5척 감소되었지만 향후는 핸디 벌커의 연속 건조를 통해 금년의 건조 목표량으로 연간 100척을 고려하고 있다.

이 회사의 건조량은 2006년 71척, 2007년 84척, 2008년 87척으로 증가했으며, 2008회기에는 91척을 기록했다.

금년 상반기에는 벌커 합계 23척을 기록했으며, 53K형/76K형/88K형/180K형의 5개 선형을 건조했으나 53K형/76K형/88K형은 이미 영업을 중지했다.

현재 영업메뉴에는 37K형/61K형 "I-STAR"/98K형 "NEXTER"/180K형(:CSR적용) 등 여러 선형이 들어 있다.

다음으로 컨테이너선이 11척으로 1,570TEU/1,700TEU형 5척, 6,350TEU형 6척을 건조했다.

자동차운반선은 5,200/5,400/6,200대적 각각 1척, 幸陽船渠에서 LNG선 제2호선을 인도했으며, 이외에 VLOC, 47K PC, 430만DWT형 집선을 각각 2척씩 건조했다. ◎